

01 교회소식

신나는 여름성경학교

우리 교회 아동주일학교 '2021 여름성경학교'가 GCN방송과 만민아동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02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시리즈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 주시고자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다.

03 기획특집

2021 만민찬양제

'2021 만민찬양제' 대상은 윤권능 형제, 금상은 이형경 집사, 은상은 이성숙 권사가 수상했으며, 인기상은 김경수 집사에게 돌아갔다.

04 간증

임마누엘, 사랑의 주님~

하나님 능력으로 손과 발의 마비 증세가 사라지고 성령으로 거듭나 가정교회를 이루고, 알레르기가 치료되는 등 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50호 2021년 8월 1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말씀 쑥쑥 믿음 쑥쑥, 즐겁고 행복했어요!”

아동주일학교 '2021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아동주일학교 '2021 여름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GCN방송과 만민아동 유튜브로 동시 방송되는 가운데 7월 31일(토) 오전 11시에는 첫 시간으로 연합 행사 '말씀 쑥쑥 믿음 쑥쑥'이 있었다.

아동주일학교 총부장 공진희 집사의 대표 기도도 시작해 교장 장성식 목사가 '신부 단장을 잘하자'(마 25:1~4, 13)라는 열 처녀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항상 깨어 있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당부했다.

이 외에 지도교사들과 교사들의 특송, 만민의 사랑을 주제로 한 아동들의 그림카드, 간증 등을 다룬 우리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가 인도한 '특별찬양' 영상을 편집한 '해피프레이즈'를 통해 아동들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 2시에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을 강

사로 '가족 성령 충만 기도회'가 랜선으로 진행되었는데 본교회를 비롯한 지교회, 인도 400여 곳에서 줌(zoom)을 통해 함께했다. 이에 아동들은 회개와 은혜의 시간을 가지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질병이 치료되는 등 간증을 전해오기도 했다.

8월 1일(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랜선으로 선교회별 행사가 진행되었다. 유치부 교사들이 준비한 다윗과 골리앗 인형극, 유년부의 말씀탐험대와 해피 찬양제, 초등부의 말씀 찬양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은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은 이번 행사를 위해 줌(zoom)으로 함께 작정 기도를 하며 정성껏 준비하였고, 그동안 각종 온라인과 줌을 이용한 화상 행사를 통해 비대면 사역을 활발히 함으로 아동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왔다.

'2021 만민찬양제' 열려

지난 8월 8일(주일) 오후 1시 30분, GCN방송을 통해 '2021 만민찬양제'가 방송되었다. 행사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예선은 영상 심사, 본선은 사전 녹화로 진행되었다.

참가 대상은 우리 교회 학생 이상으로 솔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모바일 교회 홈페이지(m.manmin.org)에 서류 접수 후 메일로 접수한 영상 심사를 통해 예선을 거친 44명 중 10명이 본선에 진출하였다(3명 참조).

그 결과 대상은 윤권능 형제(1청년선교회), 금상은 이형경 집사(1가나안선교회), 은상은 이성숙 권사(2-1여성교회)가 수상했으며, 성도들이 링크를 통해 투표로 선정한 인기상은 김경수 집사(3-1남선교회)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이날 저녁예배 시 랜선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이 전달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예수님의 가상칠언(3)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요한복음 19:30)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누가복음 23:46)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 주시고자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가상칠언(架七言)의 말씀이지요. 지난 호에 이어 제6, 7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제6언 “다 이루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뜻을 좇아 십자가를 집으로써 사망으로 가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희생함으로써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 하셨으며 원수 마귀의 진을 깨뜨림으로써 완전히 승리 하셨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인류 구속의 섭리를 다 이루심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의 삯은 사망’(롬 6:23)이므로 모든 죄인은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매번 소나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단번에 대속해 주셨습니다(히 7:27).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손에 잡혀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며 손발에 못 박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신 후 완전히 죽었다가 삼 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하여 인류를 주관하던 원수 마귀 사단의 사망권세가 깨어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좇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섭리를 다 이루신 것같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닮은 온전한 성결이며 온전한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영적인 사랑, 팔복을 이루

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하지요. 그리하여 부지런히 신부 단장을 마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때 “다 이루었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제7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며 피와 물을 쏟으셨기에 운명하기 직전에는 이미 기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제4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른 것과 달리 대속 제물로서 사명이 끝났기에 다시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영, 혼, 육이 있어서(살전 5:23) 죽음을 맞이하면 영과 혼은 육을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지요(눅 16:19~31). 그리고 육은 장사되어 썩어짐으로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육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설령 몸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운명하시기 전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을 함께 받지 않고 영만을 받으신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진리만 알 뿐 이 땅에서 겪은 눈물과 슬픔, 고통 등 혼의 작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같이 상대적으로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없고 마음 중심에서 감사할 수도 없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을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시

는 또 다른 이유는, 우주 만물의 돌아가는 과정과 섭리뿐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31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 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 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굳이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한 말씀 외에도 신구약 성경 곳곳에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민 12:13 ; 대하 32:20 ; 시 57:2 ; 막 10:47 ; 요 11:43 ; 행 4:24, 7:59). 더구나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이므로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와 같이 힘쓰고 애써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당히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 다해 충성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딤후 4:7~8).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믿음을 지킨 스테반 집사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부탁하며 순교했지요(행 7:59).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으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3.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뒤에 일어난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운명하셨습니다. 이때가 제구시로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런데 한낮임에도 제육시, 곧 정오부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계속되었고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눅 23:44~45 ; 마 27:51).

여기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란 성전 안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쳐 놓은 긴 커튼인데, 일반 백성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지성소

에는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은, 곧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다 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속할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대신 아뢰었으나 이때부터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었으니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히 10:19~20) 말씀합니다.

또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는데, 이는 살아 있는 산천초목 모든 것이 움직였음을 말하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악함을 탄식하시는 소리이지요. 독생자까지 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했는데도 마음이 완악해 끝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갈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마 27:52~53)라고 했는데, 곧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부활했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많은 무덤이 열렸지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즉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뒤에야 이들도 무덤에서 나왔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상철연에 담긴 영적 의미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되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대상 윤권능 형제



▲ 금상 이형경 집사



▲ 은상 이성숙 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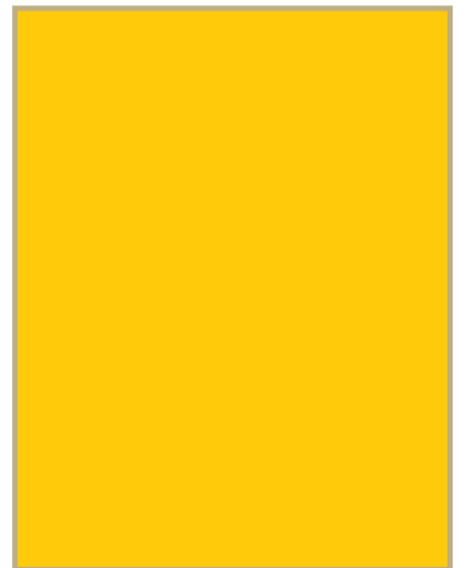
▲ 인기상 김경수 집사



▲ 유옥희 권사(위)



▲ 박은혜 자매(아래)



▲ 윤미순 집사



▲ 조영순 집사



▲ 전아영 집사



▲ 최진 권사

하나님 능력으로 손발 마비 풀려 주님 전하는 가정교회 이뤄

칼리 프라사드 성도 (36세, 인도 곤다 만민가정교회)



2009년, 갑자기 저의 손과 발에 마비가 왔습니다. 아내의 도움 없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라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여러 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난 2016년에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집을 찾아갔고 저의 집에서 병을 물리치는 종교의식 까지 행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유튜브에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기도를 받아 치료받아야겠다는 믿음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2018년, 'GCNTV HINDI' 채널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 말씀을 듣고 환자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GCNTV HINDI' 측에서는 제게 전화로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 주었지요.

이후 'GCNTV HINDI'를 통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그 주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손발 마비 증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찾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지요.

제가 치료받았다는 소식에 이웃 마을에서도 저를 보러 왔고, 저는 그들에게 'GCNTV HINDI' 채널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 약 30명의 인원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교회가 탄생하였지요.

그런데 2021년 2월, 또다시 제 손과 발에 마비가 왔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생각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수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2020년 은사집회 영상을 다시 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실 때 간절히 기도를 받았지요. 그 뒤 손과 발의 마비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통증은 아직 남아 있었지요.

곧 있을 '렌선 은사집회'를 앞두고 저는 온전히 치료받기 위해 남은 시간 더욱더 철저히 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마침

내 3월 14일, 감사 이복님 원장님(만민기도원)께서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해 주실 때 남아 있던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부족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늘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인도 곤다 만민가정교회

“고양이 알레르기를 치료받았어요!”

벌어르마 집사
(56세, 몽골만민교회)



지난 3월,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얼마 뒤 저와 딸은 고양이 알레르기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눈이 가렵고 충혈되었으며, 코는 답답하고 콧물이 났으며 호흡 곤란, 피부 가려움증 등으로 잠도 잘 자지 못했지요. 또 잇몸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심하고 치아가 흔들려 음식을 씹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3주간 작정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응답의 때라 생각해 기쁨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고양이 알레르기 치료 등 마음의 소원을 놓고 7일 금식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지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딸은 모든 알레르기 증상이 사라지고 온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들이 유학 비자 연장을 수월하게 받는 축복도 받았지요. 할렐루야!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서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세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